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명승 지정예고

자연·역사문화·경관 가치 등 갖춘 아름다운 자연경관 인정

고창군 아산면 병바위 일원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名勝)으로 지정된다.

8일 문화재청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아산면 병바위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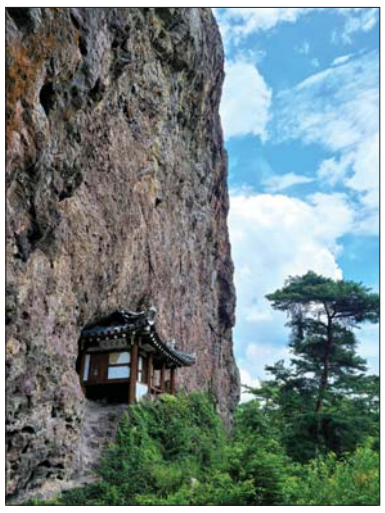
'고창 병바위 일원'은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위치한다. 병바위는 높이 35m 정도의 크기로,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풍화되며 생겨난 엎어진 호리병 모양의 독특한 생김새의 바위이다.

바위는 소반바위, 두락암(전좌바위) 등 주변 과도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크고, 바위 주변 두암초당에서의 강학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함께 시·글·그림으로도 오랜 기간 고창 현과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지질학적으로 병바위 일원은 1억5000만년 전부터 형성된 기암괴석으로, 침식으로 생겨난 수많은 단애(diff), 스택(stack)이 있고, 타포니(tafoni)와 같은 화산암 지형경관을 갖고 있다. 즉, 유문암질 응회암의 노두를 관찰하고 타포니 학습장소로 적합하고 보존가치도 높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병바위에 착생해 서식하는 덩굴류(백화등, 담쟁이)의 식생학적 가치와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등의 경관적 가치가 훌륭해 명승적 지정 조건인 경관생태적·문화적·역사적 의미가 빼어나다.

병바위는 '여지도서(흥덕)'(1757)와 '해동지도'(1750년대 초), '호남읍지', '지방지도'-고


고창 병바위 일원 두암초당 근경.

창현과 흥덕현(1872) 등 여러 기록에 호리병 바위라는 뜻의 '호암(壺巖)'으로 표기됐고, 병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문헌자료 등도 확인해 역사성도 갖췄다.

병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선동마을 뒤 선인봉 반암 뒤 잔칫집에서 몹시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걷어차자 소반 위 술병이 굴러 떨어져 인천강가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변의 여러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또는 선인취와(仙人醉臥)라 하여 명당으로 알려져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조선 중기 저명한 유학자인 이황(영남) 및 김인후(호남)와 교류했던 고창의 유학자인 호암 변성온, 인천 변성진 형제의 세거지로 명성이 난 곳으로 두암초당(고창군 향토문화유산)이 자리한다.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두락암(전좌바위) 중턱에 암굴식의 초당을 지어 강학장소를 마련했고, 이와 관련한 인문역사적 가치도 크다고 평가됐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독특한 형상으로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조망대상(병바위, 두락암, 두암초당)이면서 주변 지역을 내려볼 수 있는 빼어난 조망장소로써 가치도 탁월하여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에 이어 고창군에서는 2번째로 지정되는 명승이다.

명승은 다른 문화재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도 120기 정도만 지정된 희소성의 가치와 관광효과가 매우 큰 국가지정문화재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병바위 일원이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국가 명승(자연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창군이 진정한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로 인정받게 됐다"며 "고창갯벌, 고인돌 유적, 선운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생태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앞으로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나태주와 함께 '오하태' 댄스 챌린지

태권도진흥재단, 10일부터 대국민 콘테스트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나태주와 함께하는 '오하태' 댄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오하태는 '오늘 하루 태권'이라는 의미와 '태권도는 핫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하태 댄스 챌린지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태권도원 공식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나태주 댄스' 영상을 시청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오하태 앨범 커버'를 클릭해야 한다. 이어서 창 하단에 있는 '오디오 사용' 버튼을 누르고 '1분 45초 설정'을 한 후에 '30초 오하태 댄스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면 된다. 촬영한 영상은 #오하태, #오늘하루태권, #나태주챌린지, #태권도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채널에 전체 공개로 업로드한 후 참가 링크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태권도장이 활성화되는데 힘을 보태고자 진행한다"며 "나태주의 오하태 영상을 시청한 후 많은 분들이 콘테스트에 참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댄스 챌린지와 관련한 문의는 태권도진흥재단 담당자(063-320-0127)에게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영상미디어 속 남원 홍보·영상산업 증진 '맞손'

남원시-전주영상위원회, 업무협약

남원시는 영상미디어 속 남원의 숨은 비경 알리기 위해 사)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박흥식 영화감독)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남원의 대표적 영화·드라마 촬영지인 광한루원을 비롯해 지리산, 서도역, 남원예촌 등 영상 속의 남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영상산업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향후 남원에서 촬영되는 영화 및 드라마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 상생발전을 꾀하고, 상호 정보공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촬영 유치지원과 영상관련 인재육성, 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등 도내 영상사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2001년 설립되어, 지난 2017년도부터 전북도내 숨겨진 명소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이번 남원시와의 업무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영화제작 지원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이 남원에서 제작·촬영돼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양

남원시는 영상미디어 속 남원의 숨은 비경 알리기 위해 사)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박흥식 영화감독)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관의 영상산업 증진은 물론 영상미디어 속 남원홍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10여편의 드라마·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남원 광한루원은 최근에도 조선 여화공의 이야기를 담은 SBS 드라마 홍천기를 촬영, 시청률 10%대를 기록하는 등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 성황리 개최

김제시가 진행한 '진짜 문화재를 만나다 2021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夜行)'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제약 속에서도 큰 호응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한 ▲집콕 문화재 체험 ▲한지등 만들기 ▲쌀강정 만들기 체험 등 600여 건의 수량이 동시 접속 2만3,000여 명, 접수 시작 1분여만에 예약 마감을 기록하며 시작한 이번 야행은 ▲왁자지껄 김제 홈쇼핑의 총 조회수가 5,000건을 넘는 등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 야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무형문화재를 만나다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장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김제야행 VR투어를 통한 온택트(ONtact) 문화재 야행의 새로운 시도는 ▲최후의 항전 영웅 정담 이야기로 이어져 ▲김제 역사문화투어 ▲구석구석 랜선투어까지 김제의 역사적 인물과 명소를 흥미롭게 풀어내 김제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습자료로서의 활용의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21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을 통해 "김제의 소중한 문화재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로 풀어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김제를 직접 찾지 못하는 전국민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감동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윤임 작가 '소풍'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김윤임 개인전 개최

'소풍가는 길' 문인화 작품 20여점 전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26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문인화가 김윤임 개인전 '소풍가는 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윤임 작가는 국제교류전 우수작가상, 전라북도미술대전 우수상, 한국서도협회 전라북도지회 특선상, 박물관협회 공로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한국대표작가초대전, 남북통일을 위한 통일미술대축전, 전북미술협회기념 초대전, PHT갤러리 전시,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전 등 국내외 다양한 전시 참여 경력을 지닌 문인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대나무와 학, 꽃과 새, 물과 구름 등을 주요소재로 한 '정', '비상', '동행', '속삭임'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인화가 석향 정의주 작가는 "작품마다 현경작가 특유의 개성미인 역동적인 채색과 여백미의 멋스러움이 이번 전시 관람포인트가 될 것이며, 소풍가는 길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게 작품활동에 정진해 온 작가정신이 수준 높고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